제4판 정보통신용어사전을 발간하면서...

문정임
TTA 표준본부

1. 서론

정보통신용어사전은 '93년도에 초판 발간을 시작으로 그 이후 제2판, 제3판을 발간하였고 2000년 12월에는 드디어 제4판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그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사전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힘든 작업이다. 제멋대로 낱말로 떠도는 용어를 수집하여 적절한 이름을 붙이고 살을 붙여서 다듬고 또 다듬어서 제대로 된 하나의 용어가 탄생하기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도 막상 사전이 발간되고 나면 뿌듯함보다는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이번 제4판은 사전 전문출판사인 (주)두산동아와 공동출판하게 되어 일단 기존사전들에 비해 외형적으로 품질이 많이 향상되었고 내용 편집에 있어서도 체계성을 갖추었다고 본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만큼 많이 보급·활용되기를 바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정보통신용어사전을 발간하게 된 계기와 제4판 사전이 나오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가. 정보통신 용어표준화의 추진과정 및 현황

1990년대 들어 정보통신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일상생활에서 통신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용어들이 무수히 생성되고 수시로 국내에 도입되고는 있었으나 외래어를 발음 그대로 한글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우리말화 또는 표준화 작업의 추진이 시급하게 되었다.

전기통신용어표준화 조사연구사업은 이같은 상황에서, 첫째 다양한 형태로 혼용되고 있는 통신 관련 용어의 표준화, 둘째 용어사전의 발간·보급이라는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시

작했다. 1991년 한국통신과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1차로 '전기통신용어표준화조사연구사업'을 1991년부터 1993년 상반기까지 2년 반에 걸쳐 수행하다가 1993년부터는 '정보통신용어표준화 조사연구'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했다.

이후 1995년 3월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전 문화체육부)·국립기술품질원(전 공업진흥청)의 3개 부처가 정보통신 용어표준화를 공동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들 3개 부처 관련자들로 구성된 정보통신용어표준화위원회가 7월에 설치되어 1997년 8월까지 활동하다가 체계 일원화와 신속처리를 위해 이 해 9월 정보통신용어표준화 심의위원회로 재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다. 같은 기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시행기관으로서 실무전반을 담당해 왔다.

나. 전기통신용어표준화의 조사연구

전기통신용어표준화의 조사연구사업을 30개월에 걸쳐 전개한 결과 통신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들 중 약 2만 5천 개를 수집하여 조사·분석함으로써 순수 우리말 어휘 및 표준화 어휘로 된 용어의 수를 늘렸으며,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바로잡았다.

1991년 2월 한국통신과 조사연구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기초조사에 들어갔다. 4월 29일에는 체신부 통신기획과에서 전기통신용어표준화 회의를 개최하고 용어집의 제목을 정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정리작업을 위해 18,266개의 용어에 대한 개개의 조사카드(word sheet)를 작성했고, 이들 용어를 18개 부문-기초, 전화교환, 선로, 전신, 전원, 무선통신, 광통신, 통신망, 데이터 통신, 컴퓨터, 단말기기, 전송, 위성통신, 화상통신, 전파, 방송, 통신서비스, 관리·운용 부문-으로 세분화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1991년 5월에는 용어선정 및 부문별 분류작업을 하고 7월에 표준화안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10월까지 심사 및 감수를 마쳤으며 12월까지 18개 부문 2,007개 용어의 초고를 확정하고, 이를 전산입력했다.

1992년 2월 다시 한국통신과 조사연구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 기초조사 및 분석작업에 들어갔으며, 5월에는 용어선정 및 부문별 분류작업을 했다. 그렇게하여 7월에는 검토대상 용어 18,266개 중 10,819개를 선정용어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12월까지 감수작업을 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정도 지연되어 해를 넘긴 1993년 1월에야 초고를 확정하고 전산 수정작업에 들어갔으며, 이후 5개월 여의 편집·제작기간을 거쳐 6월 18일 정보통신용어사전 초판을 발간했다.

10,819개의 용어를 한글 자모순으로 수록한 정보통신용어사전은 선정된 용어를 표준화하고 우리말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총 1,294쪽에 국판 16절, 2단 가로쓰기로 배열했으며, 1,000부를 인쇄하여 학계 및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용어사전 발간외에도 사업추진 기간중 외래어로 된 624개의 용어를 우리말화했고, 잘못 사용되고 있던 993개의 용어를 바로잡았으며, 혼용되고 있던 용어 714개를 하나로 통일·순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중 부문별로는 컴퓨터 및 데이터 통신 관련용어가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사전을 만들고 잘못 쓰이는 말을 바로잡고 다듬는 작업은 힘들고도 인내를 필요로 했다. 작업 진행과정의 곳곳에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복병처럼 돌출되었으나 담당자들의 사명감과 끈기로 이를 헤쳐나갔다. 그리하여 이제는 어느 전문분야의 사전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가질 정도가 되었다.

다. 정보통신용어표준화의 조사연구

정보통신용어표준화 조사연구사업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수행된 '전기통신용어표준화 조사연구' 사업의 연장선에서 크게 '정보통신용어사전발간'과 표제어 중심의 '정보통신용어표준화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고도 정보통신서비스 확산으로 신용어의 대량생산 및 보급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분야 신기술 관련용어를 국내표준화·우리말화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보급하기 위한 '정보통신용어표준화 조사연구'는 잠시도 중단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이후 이 사업은 1998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1993년 1월 연구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료 조사에 들어갔으며, 2월 한국통신과 다시 조사연구협약을 체결했다. 5월부터는 용어 및 표제어를 선정하고 조사카드를 작성했으며, 8월에는 부문별 분류작업을 했다. 9월부터는 선정용어의 수정 및 첨삭작업을 하여, 11월부터 선정용어 목록 전산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8월부터 12월까지 교열작업을 병행했으며, 1차 정리된 초안에 대해 4월부터 12월까지 감수작업을 했다.

작업진행의 주요과정을 보면 총 6,000여 개의 용어를 수집하여 이를 18개 부문별로 분류작업을 했으며, 총 6,000매의 용어 조사카드를 작성했다. 이중에서 다시 번역용어 1,200개, 국내 용어 2,500개 등 3,700개의 용어를 추려 목록전산화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93년과 '94년에 정보통신용어사전 제1판의 수정·보완작업을 병행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용어사전 수정·증보판을 발간하였다.

라. 정보통신용어표준화 조사연구사업의 공동 추진

한편 1995년 3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분야 관련용어에 대한 표준화를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전 문화체육부)·국립기술품질원(전 공업진흥청) 등의 3개 부처가 공동추진키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이들 3개 부처 관련자들로 구성된 정보통신용어표준화위원회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활동을 해왔다.

정보통신용어표준화 조사연구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국립기술품질원이 각기 다른 관련규정에 의하여 표준을 제·개정함으로써 빚어지는 현상으로서 정보통신 관련용어들이 서로 표현을 달리하거나 혼용하는 사례가 다발하는데 대해 부처간 공동 용어표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현실화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3개 부처의 공동추진 합의를 바탕으로 1995년 4월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용어표준화 공동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와 국립기술품질원에 통보하였으며, 그 시행방법은 이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수행해오던 '정보통신용어표준화 조사연구'과제를 근간으로 통합·보완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조직은 협의회 아래 정보통신시스템 용어, 소프트웨어 용어, 금융용어, 코드 용어, 정보처리용어, 특수용어 등 6개 전문 분과위원회를 두고 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반을 별도로 두었다.

1995년 7월에는 정보통신용어표준화 협의회를 6개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3개부처 담당과장 등 9명으로 구성했으며, 산하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각 부처에서 추천한 총 72명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무국 직원들로 실무반을 구성했다.

1995년 9월부터 11월까지 정보통신용어표준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어표준화 기본방침과 세부추진계획을 정하는 한편 운영규정과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1997년 1월부터는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정보통신 관련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용어표준화 작업을 수행했으며, 9월부터는 신속한 용어표준화를 위해 6개 분과위원회를 용어표준화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했다.

1999년에는 4개(전기통신, 정보기술, 무선·방송, 데이터통신 및 S/W) 분과위원회를 용어표준화심의위원회 산하에 신설하여 용어표준화 추진체계를 보강하였다.

2000년 9월에는 체계적이고 원활한 용어표준화위원회 운영과 객관적이고 범용적인 용어수집을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용어표준화 추진체계를 개선하였다.

마. 정보통신용어사전 발간 현황

연도(판)	수록(어)	분량(쪽)
제1판 1993년	10,800	1,294
제2판 1994년	15,000	1,700
제3판 1997년	18,500	1,776
제4판 2000년	20,275	2,090

정보통신용어사전 발간 현황

1993년 6월에 발간된 정보통신용어사전 초판(1,294쪽 분량)이 나오기까지의 주요과정을 보면, 먼저 용어사전류, 기술참고서류, 편수자료류 등 103권의 관련도서를 수집하여 1차로 18,000여 개의 용어를 골라낸 뒤 이들을 대상으로 용어 선정작업에 들어가 표준용어 시트를 작성했으며, 이중 12,000어를 선정했다. 그리고 다시 선별과정을 거쳐 1차 용어표준화안으로 11,000어를 올리는 한편, 650어는 번역을 했다. 용어표준화 초안작성시 용어의 통일·순화·우리말 표기 2,300어, 표제어의 내용설명 교정 약 5,000어 표준화용 원고 약 11,000어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이후 출판계약을 하고 전산사식 및 편집, 교정, 인쇄 및 제본과정을 거쳐 각처에 보급했다. 이 사전은 관련분야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통신기술의 관리와 전문가 양성교육 등의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으며, 일반인도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다.

또한 정보통신용어사전 초판 발간 직후인 1993년 6월부터는 신규용어 수집작업과 함께 초판의 수정·보완 작업을 병행하여 1년 반만인 1994년 12월에는 제2판(15,000어 수록 1,700쪽)을 발간하였고 1997년 8월에 다시 개증판 제3판(18,500어 수록, 1,776쪽)을 발간하였으며 다시 3년의 작업을 거쳐 2000년 12월에 제4판을 발간하였는데, 특히 제4판에서는 CD-ROM 타이틀을 함께 제작하여 독자들의 편의를 돕고 용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초판에서는 사전의 전체 얼개를 짜맞추는데 집중한 나머지 내용이 거친 부분이 적지 않았으나 제2판, 제3판, 제4판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용어를 걸러내고 표현을 다듬는 등 내용면에서 보다 알차졌으며 특히, 제4판은 사전 전문출판사인 (주)두산동아와 공동출판하게 됨으로써 사전 내·외적으로 최고의 품질을 갖추게 되었다.

바. 제4판 사전 및 CD-ROM 타이틀의 특징

정보통신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정보통신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간하게 된 이번 제4판 정보통신용어사전 및 CD-ROM 타이틀은 '93년도에 초판을 발간한 이후 계속 개정·증보작업을 하여 발간한 것으로 내용은 더욱 알차고 방대해졌다.

이 사전은 국내 유일의 정보통신 종합사전으로서 컴퓨터 일반, 인터넷, 전기통신, 방송, 전파통신, 정보기술, 데이터통신,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관련용어를 기초용어에서부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 용어에 이르기까지 총 2만여 개의 용어를 집대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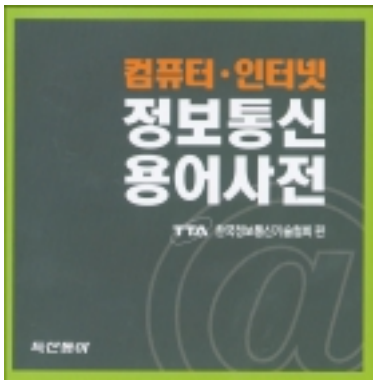
또한 이 사전은 산·학·연의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엄선된 용어들로 구성되었고 외래어 일색인 이 분야의 용어를 최대한 우리말화하고 표준화된 용어를 반영하여 표기하였으며 배열에 있어서도 다른 사전들과는 달리 국문을 우선으로 배열하였다.

특히 이번 제4판 사전에서는 정보통신용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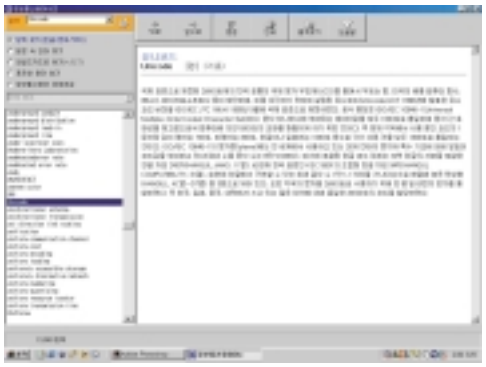
확대보급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의 CD-ROM 타이틀을 부록으로 첨부함으로써, PC 세대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제4판사전 CD-ROM타이틀의 기능

1. 찾아보기 쉬운 e-DICTIONARY
   영어나 약어 또는 한글, 어느 경우로도 표제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다.
2. 다양한 검색 기능을 갖춘 e-DICTIONARY
   와일드카드로 찾기, 풀이 내용 속에 쓰인 항목 찾기, 손쉬운 검색(하이퍼링크), 표준화 용어 찾기, 3만여 항목의 정보통신용어 표제어집 등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3. 활용도 높은 e-DICTIONARY
   메모장, 즐겨찾기, 이미지 보기, 관련 URL 연결 등의 기능을 아울러 갖추고 있다.



초기화면


검색창의 구성

3. 결론

위와 같은 작은 역사속에서 2000년 12월에 제4판 정보통신용어사전이 CD-ROM Title과 함께 탄생했다. 이번 제4판은 정보통신용어의 전국민 확산보급으로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사전의 품질향상 및 고급화 지향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기존 사전들과는 차별화된 세련된 사전을 만들자는 의지에서 사전 전문출판사인 (주)두산동아와 손을 잡고 시작했다. 공동출판에 대한 처음 기대만큼 그리고 두 기관의 협력과 각고의 노력만큼 제4판 사전은 훌륭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며, 아무쪼록 본 사전이 정보통신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2000년도에 제4판을 CD-ROM Title과 함께 발간하였으므로 제5판사전은 2년~3년 후쯤에 발간될 계획이고, 그대신 CD-ROM Title은 2001년부터 매년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작, 보급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통신시대에 대응하고자 한다.